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교육상임위원회 : 자유학년제 시행을 통한 제도정착

- 김민제 의원

저는 오늘 자유학기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과 실습 등 참여 위주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오전에는 교과과목을 수업하고, 오후에는 주로 진로탐색활동,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는 1학년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그만큼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지필고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단원평가와 쪽지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따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러면 다음 학년에 수행해야할 공부의 성취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더욱더 사교육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유학기제 성과로 중학교의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가 노린 건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계속 늘고 있지만 중학교는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교육부 자료에 이하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4.5% 오른 월 24만 천 원, 고등학교는 10.9% 오른 26만 2천 원인 반면에 중학교는 0.1% 감소한 27만 5천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사교육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중학교의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 주당 참여시간이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며 자유학기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국영수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의존도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이 꼭 써주길 바라며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학생들이 특목고 준비 등을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면서 고등학교 사교육비보다 오히려 지출이 더 많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부족한 학업을 스스로 채워야 하다 보니 학생들은 피로감을 더 느낄 것입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하다가 다시 예전의 학교생활로 돌아갔을 때 학생들은 적응하기 어려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자신의 공부습관을 잡아 놓아야 하는 놓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말할 자유학년제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는 바로 제한적인 환경과 미숙한 수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한적인 환경의 문제는 학생들의 진로와 재능을 위한 수업이 교실이라는 좁은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재능은 다양하지만 이를 개발해나가는 과정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진행되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및 수업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유학년제가 처음 시도되면서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년제 예체능 탁구 수업에서는 담당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탁구를 가르치시 않고 수업이 진행되며 3개의 교시 동안 별 다른 활동없이 본 취지와는 다른 활동이 진행됩니다. 물론 이런 사항이 학교 재량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고양시 청소년들의 진로와 재능의 개발을 위해서라면 한 시 빨리 대안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경우 1974년 첫 도입 1994년 본격 확대...2012년 아일랜드 중등학교 80% 참여하였습니다. 각 학교에 전문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체험을 해보고 고용인에게 직접 평가를 받음으로써 많은 조언을 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학생들의 수업이고 학생들의 진로이기 때문에 교육의 선택권은 학생에게 주워져야 한다. 그리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시험 난이도를 낮춰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교육을 실행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그것에 관한 큰 추진이 없다.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씩 낮춘다면 사교육위 활성화를 막을수 있을 뿐더러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볼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간편화 해야된다 생각한다. 무조건 작품만들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아는만큼 이야기하는 편안한 수업을 통해 그 아이의 실력을 평가해야한다 생각한다. 또한 수행평가 보는 시기를 고르게 분포하여 학생들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흡한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일랜드 제도의 장점을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에 일부 수용하는 것도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직 완벽히 자리 잡지 못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것은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경쟁과 치열한 입시환경만을 강조해온 우리나라가 학생들의 진로와 끼를 찾아주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최선을 다해 활동을 진행시켜야 하고 학생들의 책임감이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유학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고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면 더욱더 발전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